

## 자유전공학부 운영... 'AI신학' 등 미래인재 육성



13개 전형 856명 선발  
내달 9일 14시부터 접수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13개 전형에서 모두 856명을 선발한다.

덕성여대는 교육부의 전공자유선택제 추진에 따라 2025학년도에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고 수시모집에서 총 183명을 모집한다. 또한 교육부의 일반대학 첨단분야 정원 배정 결과에 따라 2024학년도에 가상현실융합학과와 데이터사이언스학과를 신설한 데 이어 2025학년도에는 AI신학학과를 신설하고 수시모집에서 총 25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총 436명을 뽑



는다. 이 가운데 덕성인재전형II와 기회균형전형 I 장애인 등 대상자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모집인원의 3~4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서류평가 60%, 면접평가 4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외의 6개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합격자를 가린다.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발전역량, 학업역량, 덕성역량을 종합·정성평가한다.

학생부교과전형으로는 세 전형 모두

학생부(교과) 100%로 총 264명을 선발한다. 고교추천전형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으며, 고교별 추천인원에 제한이 없다.

논술전형으로는 100명을 선발하며 논술고사 100%를 반영한다.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제시된 지문을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교과서에 나온 주제문이나 주제를 최대한 활용해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한다. 자연계열(수리논술)의 경우 공통과목인 수학, 수학 I, 수학 II에서 출제하는 기초를 유지한다. 학생부100%전형과 논술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미술실기전형은 Art & Design대학에서 56명을 선발하며 실기고사 100%로 합격자를 가린다. 실기고사는

수묵담채화, 인체수채화, 기초디자인, 기초소양 가운데 1개 과목을 택하게 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학생부100%전형(약학대학 제외)과 논술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과학, 상위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여야 한다. 학생부100%전형(약학대학)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과학 상위 1과목) 중 수학(미적분/기하 중 택1)을 포함한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수시모집원서 접수는 내달 9일 오후 2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실시된다.



김윤 입학처장

## 논술고사 '약술형' 운영... '인서울' 진학 기회



AI융합학부 등 26개 모집단위 선발  
전형 교차지원 가능... 내달 9일 접수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중)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805명을 선발한다. 약학과, 간호학과, 인공지능융합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바이오융합공학과 등 26개 모집단위에서 선발이 이뤄진다. '무전공(전공자유선택제) 선발'은 정시모집에서만 진행한다.

삼육대는 지난해 신설한 논술우수자전형을 올해도 운영한다. 전 학과(약학과, 신학과, 예체능학과 제외)에서 127명을 선발한다. 논술우수자전형은 학생부 30%와 논술고사 70% 성적을 일괄 합산해 뽑는다. 학생부는 1



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전 교과목 성적을 학년별 차등 없이 반영한다.

학생부 반영비율은 30%이다. 교과 성적 6등급(92점)까지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1~3점으로 크지 않아 논술고사 점수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이때문에 내신·수능모의 3등급 이하의 중상

위권 또는 중위권 수험생이 '인서울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역전의 기회로 평가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1과목) 중 1개 영역 3등급이다. 특히 탐구 1과목 3등급으로도 충족이 가능하다.

논술고사가 '약술형 논술' 형식으로 치러진다는 점도 수험생에게는 큰 장점

이다. EBS 수능완성, 수능특강 등 수능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학교 정기고사의 서술·논술형 문항 난이도로 출제한다. 평소 학교 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충실하게 준비한 학생이라면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다.

세움인재전형(종합)은 올해 수시모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205명을 선발

한다. 1단계 서류평가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를 합산해 뽑는다. 서류평가는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등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종합 정성평가한다.

교과전형인 학교장추천전형은 165명을 모집한다.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학년별 차등 없이 반영한다. 체육학과와 아트앤디자인학과는 실기 성적도 반영한다.

모든 전형에서 교차지원이 가능하며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내달 9일부터 13일까지다.



강경아 입학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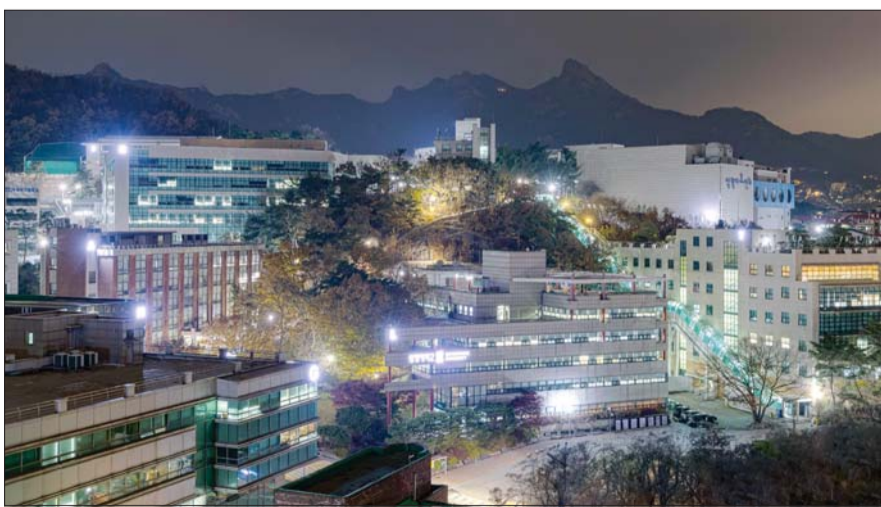
## 서울캠퍼스 자유전공 288명 선발... 논술전형 신설



서울·천안캠퍼스 1904명 모집  
내달 9일 10시부터 원서접수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는 2025 수시모집에는 정원내와 정원외를 포함해 총 1904명을 모집한다. 서울캠퍼스 총 948명, 천안캠퍼스 총 956명이다.

서울캠퍼스 수시모집 모집인원은 정원내에서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349명, 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 기회균형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226명, 논술(논술전형) 101명, 실기/실적(실기전형) 138명이다. 정원외에서는 학생부교과(서해5도학생전형) 4명,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130명이다.



천안캠퍼스는 정원내에서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409명, 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 기회균형전형) 228명, 실기/실적(실기전형, 특기자[체육]전형) 218명, 정원외에서는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71명, 학생부종합(특성화고

졸재직자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30명이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롭게 선보이는 자유전공 선발과 논술전형의 신설이다.

올해 자유전공으로는 총 288명의 학생을 모집한다. 서울캠퍼스에서는 인문

계열에서 인문사회계열 38명, 경영경제계열 29명을 선발하고 자연계열에서 IT계열 24명, 이공계열 17명을 선발하며 예체능계열에서도 12명을 모집한다.

서울캠퍼스 자유전공은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와 논술(논술전형)으로 선발하되 예체능계열에서는 논술전형을 실시하지 않는다. 천안캠퍼스에서는 예체능계열에서 스포츠융합자유전공학부 52명, 아트&컬처계열 41명, 자연계열에서 공학계열 75명을 선발한다. 아트&컬처계열과 공학계열은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202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논술전형 신설이다. 논술전형은 서울캠퍼스에서만 실시한다.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8조에 의해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이다. 총 101명을 선발하며, 학생부교과 10%와 논술고사 90%를 반영하는데, 약술형 논술로서 예체능계열, 융합경영학과, 국가안보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에서 실시한다.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8문항, 수학 2문항이 출제되며, 자연계열(애니메이션 전공 포함)의 경우 국어 2문항, 수학 8문항이 출제된다. 각 문항은 본문 또는 지문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 단답형, 단문형 답안을 작성하는 서술형 시험으로 구성돼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논술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원서접수 기간은 내달 9일 10시부터 13일 18시까지다.



강태구 입학처장